# 안전한 추석 명절 만든다

## 무주군, 9개 분야 종합대책 추진… 지역경제·서민생활 안정화 등 총력

무주군(군수 황인홍(사진))은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중점관리 9개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 간 청 내에 종합상황실(7개 반 31명)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화,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비롯한 9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면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과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 강구 및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단속,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총력을 쏟는다.

군은 비상진료 및 청결 등 귀향객을 비롯한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검소한 추석명절 보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명절 분위기 만들기에도 최선을 도입했다.

무주군은 명절기간 쓰레기 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 근무자를 편성해 쓰레기 원활한 수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밖에 소년·소녀가장을 비롯한 무의탁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위문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불우시설과 가정에 대한 위문과 결연 등 후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휴기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분야별로 종합대책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명절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잊으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모든 군민에 KF-94 마스크 지급

### 1인당 5매씩 명절 전 신속 배부

진안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KF-94 마스크 5매씩 지급한다.

이번에 진안군에서 지급되는 마스크는 KF-94 새부리형으로 25,000여명의 군민에게 총 12만 5000여장이 지급된다.

특히 군은 명절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7~8일까지 읍·면 직원과 종합행정 담당 실과소 직원이 함께 마을별 배부 담당자 지정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마을에 출장해 군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진안군의 전 군민 마스크 배부는 지난 2020년도 9월을 비롯해 올해 3월 등 5번째 지원이다.

전춘성 군수는 "최근 진안군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발적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최선의 예방책인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추석 연휴기간 안전한 수돗물 공급 최선

### 무주군, 비상급수 대책 마련

무주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상수도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 비상급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중 급수불량 및 단수 등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대책 마련 취지에서다.

무주군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9.9.~9.12.)동안 비상 대책반 운영으로 급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단수 등 비상사태에 긴급 대처할 계획이다.

군은 상황반 5명, 정수장 19명, 복구업체 8개소 16명 등 모두 38명이 참여한 추석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추석명절 연휴기간 동안 24시간 당직근무 상황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어 무주와 설천 정수장에 각각 3.5톤, 2.5톤 급수차량을 상주, 비상시에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7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군은 특히 추석 명절 전후를 기해 일시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급수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8일까지 취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을 대상으로 배수지 유·출입 밸브 작동 및 관리 상태를 비롯해 가압장과 배수관압 적정 유지로 누수예방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농민운동가 故 이경해 열사 19주기 추모식 장수서 열려

농민운동가 고(故) 이경해 열사의 19주기 추모제가 7일 장수군 한국농업연수원에 자리한 이경해 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최, 전라북도연합회와 장수군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추모식에 유족과 최훈식 군수, 장정복 군의회 의장을 포함한 군의원, 군민, 200여명의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와 헌화, 추모시낭송과 묘역참배, 추모 걷기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장수군 출신인 고(故) 이경해 열사는 1974년 서울농업대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인의 길을 걸었으며, 1989년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 회장에 취임해 1990년 농산물 수입개방 보완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 2001년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전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2003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앞에서 한 달 가량 단식농성을 했으며, 그 해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장 정문 앞에서 "WTO가 농민들을 죽인다"고 외치며 목숨을 바쳤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했다.

# 장수군, '농촌공간정비' 탄력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장수농협 미곡처리장 정비 추진

장수군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을 이전 및 정비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산서면에 위치한 장수농협 미곡처리장(DSC시설)은 1999년에 준공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주거지역 및 산서시장 등 중심지에 위치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오랫동안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다.

군은 이러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수농협 및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산서면 중심지에 위치한 미곡처리장을 사업대상지로 설정해 공모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민원이 많았던 장수농협 미곡처리장(DSC)을 철거 및 이전하고 아동돌봄 공간, 청장년소통공간, 주민소통공간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해 농촌공간 회복과 함께 산서면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선정은 주민들과 행정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뤄진 결실"이라며 "농촌다움을 복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지구로 장수군을 포함한 27개 시·군을 선정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추석 맞아 취약계층에 명절제수용품 전달

###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 K-water 용담댐지사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진)와 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7일 추석을 맞아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관내 저소득가구에 명절제수용품을 전달했다.

지원 대상 가구들은 11개 읍·면 지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가 어려운 64가구를 추천받아 지원했다.

제수용품 전달식에는 K-water 김세진 지사장과 직원, 협의회 읍면 지회장과 봉사자, 임직원들이 참석했으며 전달된 제수용품은 8만원 상당의 소고기, 송편, 조기, 사과, 배, 유과, 탕감, 부침개로 명절 차례지내기 필수품과 K-water 용담댐지사에서 후원한 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다.

K-water 용담댐지사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체 물사랑나눔단을 운영하며 이번 추석 명절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여 협의회와 연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전달식 직후에는 각 사회복지협의회 읍·면지회, 사회복지주민도움센터, 좋은이웃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봉사단들이 세대를 방문해 제수용품 전달과 소외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덕담을 주고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무주군, 자살예방의 날 기념 생명사랑 걷기 운동 개최

무주군은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기념해 생명사랑 걷기 운동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살의 위해성을 지각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번 걷기 운동은 자살예방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는 주소지를 무주에 둔 군민이 대상이며 걷기 앱 또는 만보계를 활용해 걸음 수를 측정하게 된다. 목표 걸음 수는 2주간 9만1백보로 하루 최대 1만보를 인정한다.

만보계 사용자의 경우 일일 만보계의 걸음 수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걷기 운동에 참여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 홍보물을 증정하고 자살예방과 관련 OX 퀴즈 풀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3일까지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어르신과 40~64세 저소득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누룽지와 김, 라면, 마스크가 담겨진 건강꾸러미 100개를 전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추석맞이 시가지 대청소 실시

진안군은 7일 추석을 맞이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 진안 이미지를 제고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대청소는 진안읍 주요 시가지, 통행량이 많은 도로변, 주요 하천변 및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등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더불어 읍·면에서도 별도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청소 행사를 진행하는 등 군 전체에 대한 정비도 실시했다.

군은 이 밖에도 주요 시가지 도로변 주변에 미세먼지 흡입차량을 운행해 청정 환경을 조성했으며 공공청사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청소도 함께 추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